의자에 묶인 요원을 때리며 고문 중인 부하. 그리고 뒤에서 지켜보는 보스.

 부하: 빨리 비밀 금고가 어디 있는지 말해!

 요원: 헉… 헉… 죽어도 말 못한다!

 부하: 그럼 죽어!

부하가 요원을 다시 팰려고 할 때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리는 보스.

 보스: 야야, 그러다 애 죽겠다.

몸을 낮춰서 요원에게

 보스: 미안하다. 부하 교육이 엉망이라서… 그러니까 말해주면 서로 편하고 좋잖아.

 요원: 놀고 있네. 엿이나 드시지.

 보스: 이런… 요즘 에이전트들은 입담이 걸치구만… 에이전트… (부하에게) 야, 이 친구

 에이전트 번호 몇이냐?

 부하: 아… 잘 모르겠습니다…

 보스: 그것도 모르고 무슨 고문을… 이봐, 친구. 에이전트 번호가 몇이야?

 요원: (약간 당황하는 듯) 그… 그건 알아서 뭐하게?

 보스: 에이전트 번호가 딱히 비밀인 것도 아니잖아? 007 이런 애들은 유명하고…

 요원: 너희 같은 쓰레기들한테 알려줄 번호는 없다.

 보스: 에헤이…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왜 이러시나… (요원의 품을 뒤지는)

 요원: 야, 하지마!

요원의 품에 69라고 적힌 명함를 발견한다.

 보스: 어? 이 새끼… 에이전트 번호가 69야?

잠시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보스와 부하. 그리고 크게 웃기 시작한다.

 보스: 이 새끼, 에이전트 번호가 69가 뭐야! ㅋㅋㅋㅋㅋ

 부하: 도대체 무슨 숭한 임무를 하길래 번호가 69냐고 ㅋㅋㅋ

 69: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! 요원 번호는 그냥 랜덤이라고!

 보스: ㅋㅋㅋㅋㅋ막 임무가 유혹하고 그런거냐? 근데 그런 임무를 할 얼굴은 아닌뎈ㅋ

 부하: 아니면 막 초고화질로 된 세상의 모든 야동이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는 서버가

 어딨는지 안다던가 ㅋㅋㅋㅋㅋ

갑자기 조용해지는 보스와 부하

 보스: 진짜 알아?

 69: 미친 놈들아, 그런게 어딨어!

실망하는 보수와 부하.

 보스: 아씨… 야, 쟤 그냥 집에 보내줘라.

 부하: (풀어주며)ㅋㅋㅋ 야, 그냥 가라. 번호 바뀌면 그때 오든가 ㅋㅋㅋ

풀리자 어리둥절하면서도 치욕스러운 표정을 짓는 요원.

 69: 나… 진짜 가냐?

 부하: (손 휘젓으며) 빨리가, 69 ㅋㅋㅋ

1년뒤.

69: (나래이션) 그 후 1년. 난 엄청난 트레이닝과 실적을 쌓은 후, 드디어 정식으로 에이전트 넘버 1이 되었다.

아지트의 문이 갑자기 열리고 요원이 들어왔다.

 69: 나왔다, 이 새끼들아!

요원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스러운 악당들.

 부하: 뭐야, 저새끼?

부하가 나서서 요원을 공격하지만 쉽게 제압 당한다.

이어서 보스도 요원에게 제압당해서 나가 떨어진다.

 69: 봤냐, 새끼들아? 이게 넘버 원의 실력이다, 새끼들아!

요원, 사실은 바닥에 쓰러져 꿈을 꾸고 있다.

 69: 아임 넘버 원…

그걸 보는 보스와 부하.

 부하: 형님, 이 새끼 웃는데요?

 보스: 냅둬. 좋은 꿈이라도 꾸나 보지. 깨면 집에 보내라.